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01/17

어떤 국무총리를 뽑아야 하나?

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‘책임총리제’를 공약한 바 있어 이번 총리에 막강한 권한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최근 정부 조직 개편 틀도 완성돼 이제는 국무총리로 누가 기용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

한국갤럽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임명을 앞두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국무총리의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
2. 표본크기: 947명
3. 조사방법: 휴대전화 RDD 조사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기간: 2013년 1월 14~16일(3일간)
5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6. 표본오차: $\pm 3.2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7. 응답률: 19%
8. 의뢰기관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- ✓ 국민이 원하는 총리 인선기준: ‘능력과 경험’ 30%과 ‘소통과 화합’ 30%, ‘출신 지역’(0.3%)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
- ✓ 경제 현안 잘 처리할 수 있는 총리 원해: ‘경기회복/활성화’ 16%, ‘일자리 창출’ 15%, ‘물가 안정’ 13%

국민이 원하는 총리 인선기준:

‘능력과 경험’ 30% ‘소통과 화합’ 30%, ‘출신 지역’(0.3%)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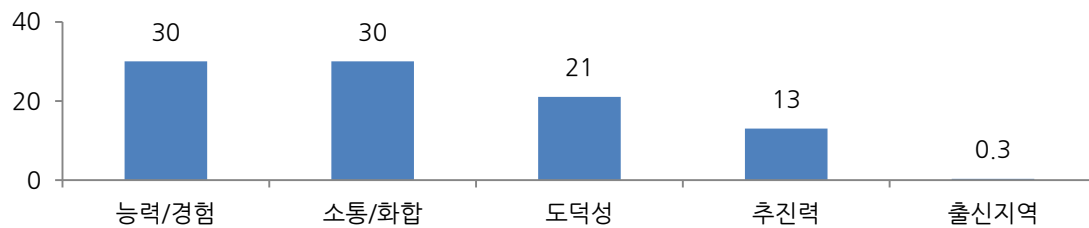
우리나라 국민들은 새 정부의 국무총리 인선 기준으로 ‘능력과 경험’, ‘소통과 화합’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갤럽이 1월 14~16일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47명에게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선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점을 묻은 결과, ‘능력과 경험’, ‘소통과 화합’이 각각 30%로 응답됐다.

그 다음은 ‘도덕성’ 21%, ‘추진력’ 13% 순으로 나타났으며, ‘출신지역’은 0.3%에 불과했다.

연령별로 보면, 30대 이하 10명 중 4명은 ‘소통과 화합’을, 50대 이상 10명 중 4명은 ‘능력과 경험’을 가장 중요한 인선기준이라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. 한편, 40대에서는 ‘소통과 화합’ 30%, ‘능력과 경험’ 30%로 나타났다.

▶ 국무총리 인선기준 (단위: %)



구분		표본수 (명)	능력과 경험	소통과 화합	도덕성	추진력	출신 지역	기타	모름/ 무응답
전체		947	30	30	21	13	0.3	2	2
지역별	서울	196	33	30	20	9	-	2	2
	인천/경기	271	28	35	21	13	0.3	2	1
	강원	29	-	-	-	-	-	-	-
	대전/세종/충청	96	29	17	30	17	-	4	3
	광주/전라	97	29	35	19	13	1.4	2	-
	대구/경북	98	34	27	21	13	-	1	3
	부산/울산/경남	150	33	27	19	17	-	2	3
	제주	10	-	-	-	-	-	-	-
성별	남성	469	31	27	21	16	0.6	3	1
	여성	478	30	34	22	11	-	2	3
연령별	19~29세	172	27	37	22	11	0.8	1	1
	30대	192	20	39	22	15	-	1	2
	40대	207	30	30	25	13	-	3	-
	50대	180	37	25	20	14	0.4	2	1
	60세 이상	195	39	22	18	14	0.3	3	5

(질문) 앞으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인선할 예정인데요.

귀하께서는 총리 인선 기준으로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*30 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.

경제 현안 잘 처리할 수 있는 총리 원해:

‘경기회복/활성화’ 16%, ‘일자리 창출’ 15%, ‘물가 안정’ 13%

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새 총리가 여러 문제 중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랄까?

응답자의 16%가 ‘경기회복/경제활성화’를 꼽았으며, 그 다음은 ‘일자리 창출’ 15%, ‘물가 안정’ 13%로 나타났다. 즉, 대다수 국민은 경제 현안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총리를 원했다.

한편, ‘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’ 9%, ‘빈부격차 해소’ 7%, ‘국민소통 확대’ 5%로 응답돼 부의 분배, 사회 갈등 완화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.

연령별로 보면, 20대는 ‘일자리 창출’, 30대는 ‘물가 안정’, 50대는 ‘경기회복/경제활성화’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‘서민을 위한 정책 추진’ 응답은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
▶ 총리가 잘 처리해야 할 문제 (상위 6위, 단위: %)

구분		표본수 (명)	경기회복/ 활성화	일자리 창출	물가 안정	서민 위한 정책	빈부격차 해소	국민소통 확대
전체		947	16	15	13	9	7	5
성별	남성	469	<u>18</u>	14	10	11	8	6
	여성	478	<u>14</u>	16	<u>15</u>	8	6	4
연령별	19~29세	172	10	<u>22</u>	9	6	<u>11</u>	3
	30대	192	17	11	<u>22</u>	6	5	6
	40대	207	19	17	14	7	6	6
	50대	180	<u>22</u>	12	9	<u>14</u>	6	7
	60세 이상	195	<u>12</u>	15	9	<u>14</u>	6	4

질문) 귀하는 새 총리가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 중 어떤 일을 가장 잘 처리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. (자유응답)